

## 『현대북한연구』 원고집필요령

### I. 원고의 구성

1. 원고는 논문제목, 국문초록(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keywords) 순서로 구성한다.  
영문원고일 경우에는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의 순서를 바꾼다.
2. 사사표기가 필요한 경우 논문제목 우측 상단에 별표(\*)를 하여 각주로 기재한다.
3. 저자의 소속/직위 정보 및 제1저자, 교신저자 등의 구분은 저자의 성명 우측 상단에 별표(\*)를 하여 각주로 기재한다.
4. 주제어와 keywords는 10개 이내로 한다.
5. 원고의 분량은 본문과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로 한다.
6. 국문초록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3매, 영문초록은 단어 수 200자 이내로 한다.
7. 참고문헌은 반드시 북한 자료, 국내 자료, 국외 자료 순서로 항목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 II. 원고의 작성

1. 본문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한다. 단, 의미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음 나왔을 때 한해, 해당 단어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인명과 용어 등의 원문을 표기한다.
2. 본문의 장, 절, 항, 목의 번호는 다음의 예에 따른다.  
예: 1. 1) (1) ①
3. 참고한 자료의 출처는 각주(footnote)의 형식으로 기재하며, 미주(endnote)와 내주(reference citation in text)는 사용하지 않는다.
4. 각주의 일련번호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며, 각주 하나의 분량이 200자 원고지 1매를 초과할 때는 가급적 본문에 편입시킨다.
5. 각주 또는 참고문헌의 인명, 서명, 논문명 등은 외국어의 경우 원어대로 쓰고, 한글 혹은 국한문 혼용의 경우 한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그림이나 도표의 경우 본문 내 적절한 위치에 <그림 1>, <표 1>의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삽입한다. 제목은 그림이나 도표 상단에, 출처는 하단에 기재한다. 출처는 '자료:'로 시작해 표기한다.
7. 심사 시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투고 논문에는 저자의 성명, 소속/직위 등을 기재하지 않으며, 저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표기는 피한다.

### Ⅲ. 각주 작성 방법

#### 1. 단행본

##### 1) 저서

최완규, 『북한은 어디로: 전환기 ‘북한적’ 정치현상의 재인식』(마산: 경남대학교출판부, 1996), 110쪽.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p.33 ~ 34.

##### 2) 편서

양문수, “북한 시장의 형성·발전과 행위자 분석,” 이석 외 엮음,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서울: 통일연구원, 2009), 35쪽.

Susan Strange, “IMF: Monetary Managers,” in Robert W. Cox and Harold Jacobson (eds.), *The Anatomy of Influence*(New Haven, CT: Yale Univ. Press, 1973), p.36.

##### 3) 역서

제프리 올릭(Jeffrey K. Olick), 『기억의 지도』, 강경이 옮김(서울: 옥당, 2011).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북조선: 유격대 국가에서 정규군 국가로』, 서동만·남기정 옮김 (파주: 돌베개, 2002).

#### 2. 논문

##### 1) 학술지 논문

이우영, “북한에서의 국가와 사회: 시민사회론은 적용가능한가,” 『현대북한연구』, 제4권 1호 (2001), 29쪽.

Dalchoong Kim, “China’s Relations with the Two Koreas: Continuity and Adjustment,”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Vol.XV, No.1(1986), p.93.

##### 2) 학위 논문

류길재, “북한의 국가건설과 인민위원회의 역할 1945 ~ 1947”(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10 ~ 15쪽.

Taik-young Hamm, “State Power and Armament of the Two Koreas: A Case Study” (Ph.D Diss., University of Michigan, 1996), pp.7 ~ 21.

#### 3. 신문

양문수, “북의 개성공단 철수는 자충수,” 『매일경제』, 2013년 4월 10일.

Jae-kyoung Kim, “US think tank now trying to 'keep 38 North afloat',” *The Korea Times*, April 20, 1998.

#### 4. 기타 자료

1) 인터넷 자료: 저자, 주제, 웹주소, 검색일 순서로 작성한다.

이수훈, “탈러슨의 순방과 동북아외교의 과제,” [http://ifes.kyungnam.ac.kr/kor/PUB/PUB\\_0501V.aspx?code=FRM170322\\_0001](http://ifes.kyungnam.ac.kr/kor/PUB/PUB_0501V.aspx?code=FRM170322_0001)(검색일: 2017년 5월 1일).

2) 문서

대통령비서실, 보고번호: 제72-81호, 대통령기록관, EA0003072.

#### 5. 같은 문헌이 반복되는 경우

1) 연속적인 경우

(1) 단행본

(국문) 위의 책, 120~130쪽.

(영문) *Ibid.*, p.210.

(2) 논문

(국문) 위의 글, 8쪽.

(영문) *Ibid.*, p.11.

(3) 신문

(국문) 위의 신문, 1998년 10월 2일.

(영문) *Ibid.*, July 29, 1998.

2) 비연속적인 경우: 출판지, 출판사, 연도를 생략하고 기재하며, 제목이 길 때는 부제도 생략한다.

(1) 단행본

최완규, 『북한은 어디로』, 150쪽.

Dae-Sook Suh, *Kim Il Sung*, p.213.

(2) 논문

이종석, “탈냉전기 북한연구의 동향과 과제,” 22쪽.

Dalchoong Kim, “China’s Relations with the Two Koreas,” p.94.

(3) 신문

『중앙일보』, 1998년 10월 1일.

*The Korea Times*, April 21, 1998.

#### IV. 참고문헌 작성방법

1. 참고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한 모든 문헌의 자세한 정보를 기재하며,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각 문헌은 북한 자료, 국내 자료, 국외 자료 순서로 구분하며, 각각 단행본, 논문, 신문, 기타 자료의 순서로 기재한다. 각 항목별로 가나다순 또는 알파벳순으로 정렬한다.
3. 참고문헌의 작성방법은 각주와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1) 국외 문헌의 저자명을 기입할 때 각주에서는 이름(first name), 성(last name) 순서로 기재하지만, 참고문헌에서는 성을 먼저 기재하고 점(.)을 한 뒤 이름을 기재한다. 즉, Samuel P. Huntington은 각주에서는 Samuel P. Huntington으로 표기하나, 참고문헌에서는 Huntington, Samuel P. 로 표기한다.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첫 번째 저자만 이와 같이 표기하며, 두 번째 저자부터는 그대로 이름, 성 순으로 표기한다. 2인 이상의 저자명을 기입할 때는 마지막 저자 앞에 and로 표기한다.

Way, Christopher and Jessica Weeks, "Making It Personal: Regime Type and Nuclear Prolifer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58, No.3(2013), pp.705-719.

- 2) 같은 저자 문헌을 여러 편 기재할 때는, 두 번째 문헌부터 저자명을 생략하고 밑줄로 표시한다.

양문수, "2000년대 북한의 반(反)시장화 정책: 실태와 평가," 『현대북한연구』, 제15권 1호(2012), 85~123쪽.

\_\_\_\_\_, "북한정부는 시장화를 관리할 수 있는가: 시장화 촉진기와 억제기의 비교분석 결과 및 시사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제1호(2010), 125~156쪽.

- 3) 각주에서는 인용한 자료의 쪽수를 기재하지만, 참고문헌에서는 쪽수를 기재하지 않는다. 단, 학술지 논문의 경우는 인용한 면이 아닌, 해당 논문의 전체 쪽수를 기재한다.

## 원고 집필시 자주 틀리는 부분

### 1. 출처 페이지 표시의 경우

한글자료의 인용은 ‘위의 책,’ ‘19쪽’ 등의 한글을 쓰며, 한글자료 인용에서는 ‘ibid.’ ‘p.19’의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ibid.’ ‘p.19’의 표현은 영문을 비롯한 외국 문헌 자료 인용 시에만 적용됩니다.

☞ 잘못된 예) 김화·고봉, 『21세기태양 김정일장군』(평양: 평양출판사, 2000), p.226.

☞ 올바른 예) 김화·고봉, 『21세기태양 김정일장군』(평양: 평양출판사, 2000), 226쪽.

2. 연속적 인용의 경우에는 ‘앞의 책’ 등의 표현을 쓰지만, 비연속적인 인용의 경우에는 ‘앞의 책’, ‘앞의 글’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출판지와 출판사, 출판연도를 생략한 채로 다시 책(논문) 저자와 제목을 씁니다.

☞ 잘못된 예) 앞의 책, 150쪽.

☞ 올바른 예) 최완규, 『북한은 어디로』, 150쪽.

### 3. 신문의 경우

「신문이름」은 『신문이름』으로 (이중격쇠 사용)

2000.8.14.는 2000년 8월 14일로 합니다.

☞ 잘못된 예) 「중앙일보」 2000. 8. 14.

☞ 올바른 예) 『중앙일보』 2000년 8월 14일

4. 김일성 선집, 김일성 저작집과 같은 북한 전집 자료의 경우, 책이름 뒤에 따로 제O권이라 표시합니다.

☞ 잘못된 예) 『김일성저작집 2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올바른 예) 『김일성저작집』, 제2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5. 학술지 인용의 경우

정기간행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학술지명』O권 O호(년도)의 형식으로 기록하며 발행지역과 출판사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잘못된 예) 이수정, “탈북자 심리의 문화정치”, 『현대북한연구』, 제20권2호(서울: 한울출판사, 2017).

☞ 올바른 예) 이수정, “탈북자 심리의 문화정치”, 『현대북한연구』, 제20권 2호(2017).

6. 과거의 글이나 글의 시기 인용 문제

인용부호 사용시 연도는 따옴표 안으로 두지 않습니다.

☞ 잘못된 예)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1972.12.)”,

☞ 올바른 예)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1972.12.),

7. 혼재되는 여러 표현의 통일

『당·군 관계』, 『당-군 관계』는 『당·군 관계』로 통일합니다.

Kim Jong-il, Kim Jong Il은 Kim Jong Il로 통일합니다.

Army-first, Military-first는 **Military-first**로 통일합니다.

8. 참고문헌은 반드시 아래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입해야 합니다.

1. 북한 자료

- 1) 단행본
- 2) 논문
- 3) 신문
- 4) 기타 자료

2. 국내 자료

- 1) 단행본
- 2) 논문
- 3) 신문
- 4) 기타 자료

3. 국외 자료

- 1) 단행본
- 2) 논문
- 3) 신문
- 4) 기타 자료